

“광주의 한, 복수 아닌 민주회복 통해 풀어야 합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7일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이 2차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3월 5일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민중의 한과 우리 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한 연설 중 일부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김 전 대통령 연설 장면. /연합뉴스

김대중도서관, 5·18 41주년 맞아 DJ美 망명 연설 동영상 일부 공개 김대중 전 대통령, 화해·용서 강조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광주의 사람들에게 충직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한을 민주 회복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 중)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하 도서관)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가해자에 대한 인적 청산 대신 용서·화해·관용의 정책을 강조한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2차 미국 망명 중이던 1983년 3월 5일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민중의 한과 우리 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한 연설 중 일부다. 이 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해결과 관련해 판소리를 인용해 민중의 한의 해소를 설명하고, 이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중의 한은 원한이 아니라서, 복수로써 풀리지 않고 그 소망의 원죄로써만 풀린다”며 춘향전과 심정전 등을 인용해 설명했다. 춘향이의 한은 자신을 고티면 변 사모에게 보복하는 것

이 아니라 이몽룡 도령과 맺어짐으로써 풀리고, 심정이의 한도 자신이 소망하던 아버지가 눈을 뜨는 일을 통해 풀리듯 우리 민중이 가진 한도, 보복이 아닌 독재정치 종식과 남북통일이라는 소망 성취를 통해 풀린다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5·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광주학살과 관련된 그의 입장은 한국 정치사와 한국 역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외교적으로 일본과 문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자료는 현재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어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노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17일 성명을 내고 “5·18을 계승하고 미래의 자손으로 이렇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그래야 말로만의 추모가 아니라 5·18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탄탄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준다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41년 전의 광주가 미안마에서 재현되

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며 “광주 시민들은 미안마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고, 미안마 시민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도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성명을 내고 “5·18 41주년, 책임자 처벌·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도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현대사의 비극인 5·18이 발생한 지 41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발포 명령자와 헬기난사,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규모 등 5·18의 핵심 진실들은 여전히 은폐되

고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안마에서 최근 5월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재조명되고,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5·18의 진실을 규명해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아울러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고 민주화를 위해 복수를 바친 5월정신이 전국화·세계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김형호 기자 khh@

친문발 개헌론 힘받나...이낙연 공식 제언

정세균 ‘분권형 개헌’ 언급...이재명 “민생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권형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대선 공약으로써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고,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권력 구조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17일 통화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가 ‘불안’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헌법 정신에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헌은 꼭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약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수직적으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더 보내고 권한도 더 강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전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 이후에 34년간의 시대적 변화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두 주자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에, 정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통화에서 “백신, 부동산, 민생 문제가 어려운 시기에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개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라며 “개헌은 여당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여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개헌 아이디어가 거론돼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회와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친문 진영이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당 중심 집권을 위해 개헌론에 힘을 실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당내 1강 주자이자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 지사의 개헌 입장이 한층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시대 넘어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전남도, 5·18 41주년 기념식

전남도는 17일 1980년 당시 전남도청 현판을 재연해 설치한 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지사과 김한중 전남도회의장,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국회의원, 오월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헌화와 기념사 등 인사말, 기념공연, 청년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부대행사로 청소년의 희망과 평화를 담은 청소년 미술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 주제인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에 부합하도록 시대를 넘어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특히 청년 낭독 순서에서는 1980년 5·18 당시 영암에 살던 한 청년이 소식을 듣고 광주로 가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던 얘기를 그 자녀가 낭독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됐다”며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눈으로 5·18을 바라보는 마음을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케 하고,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었다.

김 지사는 추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뤄냈던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였다”며 “80년 5월 광주가 민주주의 염원으로 뜨



17일 전남도청 옛 현판 앞에서 열린 전남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서 오월단체 대표들이 헌화하고 있다.

거웠던 전남 곳곳에서도 향정의 햇살이 들불처럼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강신석 목사와

백기완 선생을 추모하면서 이 두 분과 오월 영령의 큰 뜻을 본받아 전남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단독심

사고 빠나다. 010-6837-4700

돈·늘분

법적보장. 010-3605-5000

나주 요양병원

「금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공인의 다용의 이상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산 5-1번지
2. 분묘면적: 4㎡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언분묘: 연고자와 협의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례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장흥군 우치면 산105-(유지공실공공포지)
6. 연차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종 공고일로부터 90일
8. 신고방법: 전화(문의: 010-3770-8081)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전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가족, 제척증, 사실확인서, 유언장 등)를 첨부하여 관공서로 신고합니다.
10. 기타: 개장 공고 후 동일지역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관공서: 함평읍사무소
대표: 김동진(010-3656-483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서로 아래에 법규 및 기타 신고사항이 없음을 증명하여 관공서로 신고하여 임의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산 34-1(77) 산 362(7), 우산리 산 109(7)
2. 개장사유: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3. 개장방법:
 - 유언분묘: 연고자와 협의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례법 규정에 의거 임의의 개장
4. 개장장소: 장흥군 우치면 산105-1(유지공실공공포지) 100세대산 추모공원
5. 연차기간: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2021년 4월 7일 ~ 2021년 7월 6일 (최초 공고일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전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가족, 제척증, 사실확인서, 유언장 등)를 첨부하여 관공서로 신고합니다.
8. 신고방법: 전화(문의: 010-3132-3091)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전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가족, 제척증,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관공서로 신고합니다.
10. 기타: 개장 공고 후 동일지역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관공서: 함평읍사무소
대표: 김 병 수

흡수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삼진산업개발(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삼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2021년 05월 17일 각각 회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고, "갑"은 "을"의 모든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흡수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흡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1. (갑) 상 호: **주식회사 삼진산업개발**
주 소: 전남남도 화순군 중앙면 중앙로 148
대표이사: 김광현, 정남희
2. (을) 상 호: **삼진건설 주식회사**
주 소: 전남남도 화순군 중앙면 중앙로 148
대표이사: 김광현, 정남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세이엔엔지니어링(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효상건설(이하 "을"이라 함)은 2021년 05월 1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정기공시일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할당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5월 18일

상 호: **주식회사 세이엔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200111-044599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02번길 16-1(일곡동)

대표이사: 전 창길

상 호: **주식회사 효상건설**
(법인등록번호: 201111-0028096)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155

대표이사: 이옥진

산행안내

5월23일(일)

▲광주KJ산악회 5월23일(일)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해변길&장항숲길, 기질포, 신성리갈대숲길, 연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의 제출공고

장석건설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정동산업개발(이하 "을"), 남원토건주식회사(이하 "병")은 2021년 5월 13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과 "병"을 합병하여 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과 "병"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갑 **장석건설주식회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해안로 375, 1층
대표이사 양미경

*을 **주식회사 정동산업개발**
경상남도 거제시 사동면 거제남서로 5341, 2층
대표이사 양미경

*병 **남원토건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91-7
대표이사 양미경

전문건설업양도양수신청공고

주식회사 상화산업(대표 박종재)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신청서 접수제18호 제18호 및 동업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신청하오니,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래 기한내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주식회사 상화산업
(법인등록번호: 2011-07-07-01)

1. 양도양수 대상업종: 건축구조물-장초공공사업
2. 양도양수 대상업종: 2021년 06월 18일경
3.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마감일: 2021년 06월 17. 18:00분

나.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광안구 금곡로 74번길 40(신촌동) 주식회사 상화산업(☎ 062-265-8500)

주 소: 전남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동2길 69-9, 2층(동문리) 주식회사 상화산업(☎ 062-573-2199)

4. 양 도 자 대표자: 박종재 상 호: 주식회사 상화산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안구 금곡로 74번길 40(신촌동) 40(신촌동)

5. 양 수 자 대표자: 고영현 상 호: 고영현사한영건설 소재지: 전남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동2길 69-9, 2층(동문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효상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1년 05월 07일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재산(영양)의 일부인 정보통신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흡수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5월 18일

*갑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
전라남도 나주시 유정로10, 제2동 제303호 (빛가람동, 이노파크스퀘어) 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조창구

*을 **주식회사 효상건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524호 (영천동, 에스에이치스퀘어)
대표이사 이상식

光州日報

지국 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산 571-7658
남구	• 오 지 266-7601	• 용 북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일 222-9054	• 중 정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광안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경 376-6511
광진구	• 동 광 603-0311	• 화 정 369-1625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光州日報

이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	---------------------